

Issue Comment

2018. 04. 06

현대그린푸드 033780

현대백화점그룹 순환출자 해소 Comment

● 음식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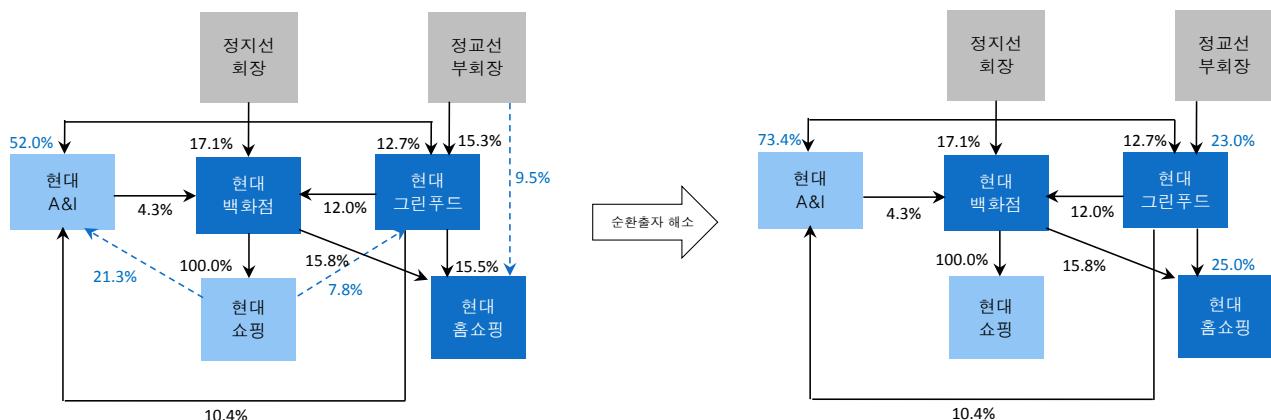
Analyst 김정욱
02. 6098-6689
6414@meritz.co.kr

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, 정교선 부회장의 지분 매입을 통해 순환출자구조 해소

1. 정지선 회장 현대A&I가 보유한 현대A&I 지분 21.3% 매입, 현대A&I 지분율 73.4%로 확대. 약 320억원 은행차입을 통해 자금 확보
2. 정교선 부회장 현대A&I가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.8% 매입, 현대그린푸드 지분율 23.0%로 확대. 기존 보유하고 있던 현대홈쇼핑 지분을 현대그린푸드에 매각하면서 약 1,200억원의 자금 확보
3. 현대그린푸드는 현대IT&E의 물적분할을 통해 IT신사업 추진 및 VR사업 전담을 위한 법인 신규 설립함

회장/부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. 지주회사구조 체제는 아니지만 단기간의 추가적인 지분매입/매각 이슈는 제한적일 전망. 현대그린푸드 입장에서는 분할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주가 하락 압력 해소 및 IT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로 판단

현대백화점 그룹(현대백화점, 현대그린푸드 등) 순환출자 해소 전/후



자료: 각 사, 언론보도,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04월 0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04월 0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04월 0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정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